

1998년 3월 23일 월요일

시론 IMF시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위기극복의 열쇠는 경제개혁에 있다

이 재 현
(경실련 정책실 간사)

세계경제질서는
‘공동운명체속에서의 무한경쟁과 합의관계’로 요약된다

무엇이 국산품인가. LG-IBM, 폴란드 대우, 필라코리아... 자본은 미국, 자재는 일본, 노동력은 한국. 혹은 자본은 한국, 자재는 일본, 노동력은 중국, 삼성이 중국에서 만들어 역수입한 가전제품은 주인이 우리나라인가 국산인가. 만들어진 장소가 중국이니까 메이드인 차이나인가.

절약은 애국인가. 도식적이긴 하지만 국내 연간 소비의 10%를 줄이면 실업자가 1백만명이 양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간 50만명의 사회진출자를 위한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6%의 경제성장을 해야하는데 말이다.

절약은 애국인가

우리나라의 경제사는 소위 ‘박정희 패러다임’으로 요약된다. IMF시대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종말을 선고하고 있다. 정부가 재벌을 키워주고 재벌은 정부에게 그

대가를 치른다. 따라서 재벌이 호황이면 국가 경제도 호황이고 재벌이 불황이면 국가 경제도 불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정치권과 경제권의 오랜 유착으로 이어져 왔다. 한국의 이러한 구조는 WTO체제를 맞이해 울며 겨자먹기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한국의 왜곡된 거품경제는 세계경제의 통합화 과정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국제자본의 유입은 국내경제에 있어 단비와도 같다. 금융실명제가 유명무실화된 이후 시중의 현금유동은 모두 지하로 숨어버렸다. 우리의 역할은 그돈이 다시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뭘할진 자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차관으로 국내산업개발에 투자,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세계경제 질서가 시장 논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장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흑자는 자유로운 M&A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 자본이 국내의 기업을 매입했다거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해서 일부 주장처럼 우리나라가 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화 필요한 사회구조

그 자본을 통한 더 많은 부는 결국 우리사회의 부의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은 초국적이며 유동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자본은 우리나라의 막힌 돈을 풀어주고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어진 과제는 빠른 개혁과 준비된 개방이라는 것이다. 단 이러한 국제자본의 유입 이전에 국가경제의 대다수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들의 빠른 개혁이 요구될

다. 이와같은 세계경제질서는 ‘공동운명체 속에서의 무한경쟁과 합의관계’로 요약되지만 ‘점령군과 식민지’의 관계로 단순화되지는 않는다. 물론 불평등한 통상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등을 미국이 우리에게 했던 것으로만 이해하는것도 우습다. 우리 또한 약소국에게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지식과 경쟁력이 국력을 반영하는 것이지 근대적 혁명론만 으론 곤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리해고라는 문제 또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간의 고통스런 투쟁일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주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식의 해고라든지 아니면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근대적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식민지 논리의 허구성

그러나 해체는 새로운 건설을 위한 준비이다. 사고의 전환, 전환의 사고-국산품 애용보다는 국산품 품질개선을,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이것이 IMF 시대의 작은 결론이다.

세시봉

모방심리와 파괴심리

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게스트가 대화를 나눈다. “TV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잘 생겼네요” 진행자가 말하자 게스트가 대답한다. “제가 원래 한 미모하죠” 그곳에 모인 방청객과 TV를 시청하던 시청자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자 “우리 한 춤춰요”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최근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온 ‘한...’이라는 말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한 커피 할래요?’, ‘내가 한 노래하지’ 등의 말은 이미 일상화 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대화속에서 청량제(?) 역할을 하는 이 단어가 한국어를 파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어의 부정관사처럼 아무 말 앞에서도 붙어 어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얼마전 방송위원회는 ‘라디오 보고서’에서 청소년대상 라디오 프로그램 연예인 진행자들의 부적절한 언어의 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TV프로그램의 MC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김동혁 문화부장

시청자들을 웃기기 위해서라면 어법쯤은 상관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아, 너 죽을래?’, ‘어머머 웬일이니’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반말이나 비속어도 문제시 되고 있다.

사실 방송매체의 영향력은 끝이 없다. 특히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는 그 영향이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청소년, 특히 10대들은 그것을 무심코 따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미미하고 하찮은 부분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말을 파괴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싶다.

미디어는 그 사회의 거울이다. 미디어가 올바르게 자리매김 되어야 맑고 깨끗한 사회가 정립될 수 있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언어유희와 오용, 10대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방송 진행자들의 사회적 자각 속에서 깨끗한 거울을 기대해 본다.

PC 통신원

성추행 퇴치의 발판

“복잡한 열차내에서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열차 내에서 옆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불쾌한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지하철 내에서 시행된 성추행 경고방송이다. 이 안내방송은 지하철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단체가 지하철공사 측에 건의한 것으로 현재 이 방송에 대한 통신원들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방송을 들을 때마다 소수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지하철 안 모든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보는 것 같아 상당히 거북하다” (하이텔ID:ysu528) “이런 사실을 아는 외국인의 눈에 한국남성이 어떻게 보일지 수치스럽다” (하이텔ID:10SKIM) 한편 “경고방송이 자칫 상습 성추행범들에게 있고 있던 추행욕구를 자극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 된다” (나우누리ID:MEGACITY)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경고방송을 듣고 추한 손을 거두게 하여 단 한 여성이라도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다면 경고방송을 해야 한다” (하이텔ID:난사랑) “현재 지하철 성추행범의 수가 너무 많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전용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쓸모가 없다” (유니텔ID:sey026)며 차선책으로서 경고방송은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같은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은 숨겨져 왔던 여성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성추행 퇴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방송을 시작으로 성추행 적발 후 엄격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수윤 기자>

사설

투명한 행정위해 취재에 응하라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과거 권위적인 정부 하에서는 사실보도와 비판, 견제가 언론에 부여된 임무였다면, 최근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구성원 간의 결속력과 공감대 형성이 또 다르게 제기되는 역할이다. 결속력과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는 과거의 권위적인 형태의 강요된 일체감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한에서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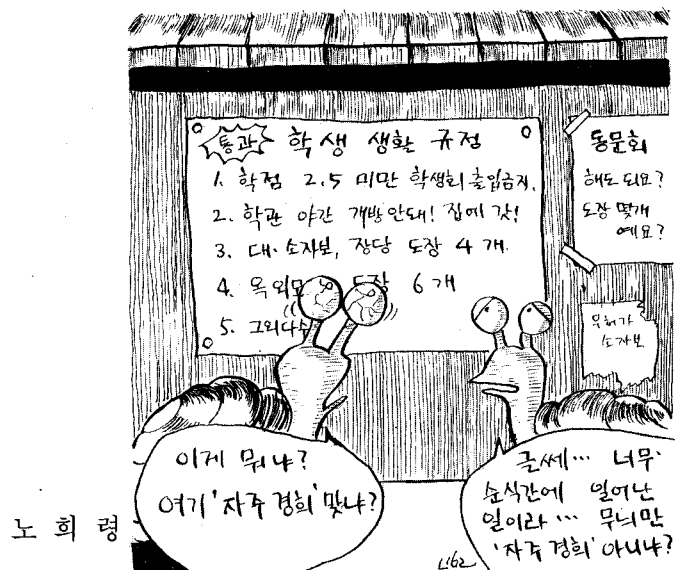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대학주부의 취재기자가 서울, 수원 양 캠퍼스 기획조정실에서 당한 취재거부 내지는 부실한 자료제공은 경희대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는 예라고 보여진다. 수원 캠퍼스 기획조정실의 경우 기자의 소속이 서울캠퍼스라는 이유로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주부가 서울과 수원 양캠퍼스를 아우르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원을 구분한 것이다. 또한 서울 기획조정실은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보도의 정확성을 흐리게 했다.

우리는 여기서 각 행정부서 내지는 유관기구들의 취재거부가 가져올 심각한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가뜰이나 어려운 내내의 적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한 보씩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들에서 입안되는 정책과 기획안들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인지되고 교감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그러한 정책들이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칠지 모르지만 반대 의견들이 수렴되고 난 이후의 결정안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추진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재거부는 구성원과 대학 간에 이렇저야 할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통로를 막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통사리기 내지는 밀실행정이 가져 올지도 모를 결과는 구성원들 간의 불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

우리대학에서 대학주부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는 바로 대학 구성원들간의 공감대 형성과 결속력을 높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경희학원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바로 대학주부이고 대학과 구성원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유일한 매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맹목적인 취재거부는 언론의 제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침소봉대로 비취지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나 현재 각 대학들이 처한 어려움을 전제로 볼 때 구성원들 간의 학교정책에 대한 신뢰와 동의는 절대적이다. 학교의 행정부터 투명함을 보장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할때 우리대학이 전국의 어느 대학보다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가는 명문사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경희만평



한국을 움직입니다
세계를 움직입니다-